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AMONG THE TEN THOUSAND THINGS

가제 : 수만 가지 가능성

저자 : Julia Pierpont

출판사: Random House

발행일: 2015년 4월 1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가족



- * 미 전역에서 **54,000**권 이상 판매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판권 계약
- * 스카트 피츠제럴드 상 수상작,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허핑턴 포스트」 선정 최우수 도서, **2016** 딜런 토머스 국제 도서상 수상 후보
- * “부드럽고 섬세한 시각, 풍자적이고 자신만만한 목소리, 작가는 뉴욕의 삶을 인류학자처럼 세밀하게 그려낸다.” – 「워싱턴 포스트」

생전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애칭을 알고 있다면, 심지어 자녀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하기 꺼끄러웠던 집안의 소소한 사건들을 알고 있다면,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 게다가 그 낯선 상대가 10년 넘게 한 집에 살아온 배우자의 은밀한 상대였다면? 데보라는 이런 사실을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알게 됐지만, 생각보다 충격은 크지 않았다. 유망한 발레리나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탄탄하게 지키려고 꿈을 버린 건 데보라 자신이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술가라지만, 남편은 섬세하다고 칭찬하기엔 너무 나약했다. 나약하면서도 나르시즘에 빠져 사는 못난 남편이 여자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약한 남자라는 건 이미 알아챈 지 오래였다. 이 일이 데보라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타격을 날린 건 다른 이유에서였다. 남편이 보냈다는 지저분한 메시지, 추잡스러운 내용이 가득한, 연애 편지라 칭하기도 민망한 이메일을 아이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평온하던 집안에 폭탄 상자가 배달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열한 살 케이, 열다섯 살 사이먼 두 남매는 집에 배달된 종이 상자 속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케이는 누가 깜짝 생일선물을 보냈거니 하는 생각에 오히려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상자 속에서 나온 건 수백 장에 달하는 종이 뭉치였다. 모두 아빠가 어

편 여자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다. 소포를 보낸 주인공이 친절하게 동봉한 설명처럼, 불같이 서로를 원하다가 버림 받은 여자는 자신만의 복수 겸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몹쓸 방법을 택했다. 그녀가 원한 건 데보라가 남편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었지만, 그 총알은 아무 죄 없는 두 아이들의 심장에 박히고 말았다.

데보라는 아이들이 그냥 읽어도 부적절한 내용을 아빠가 직접 썼다는 사실을, 가족의 사생활까지 그 여자에게 시시덕거리며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엄청난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모든 사태의 주인공, 짝은 잘 나가는 조각가였지만 한 없이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남자였고 그 역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사태로 두 사람 사이에는 봉합할 수 없는 균열이 일지만 아이들만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새로 시작할 기회를 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한창 예민할 시기에 케이와 사이먼에게 던져진 현실은 너무 무거웠다. 사이먼은 데보라가 혼란스러워하는 틈에 마약과 섹스 등 온갖 비행을 일삼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할 만큼 예민하던 케이는 이메일에서 읽은 글을 뜻밖의 형태로 다시 표현하기 시작한다.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한 팬 픽션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야한 이야기를 쓰는데 몰두하는 케이를 보면서 데보라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혼란에 빠진다.

사실 오래 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위태로운 결혼 생활에 찾아온 폭탄, 뿌연 폭발의 연기와 잔해 사이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외로움과 삶의 허무함을 저자는 풍자적이지만 너무 냉소적이지 않게, 뻔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실화처럼 생생하게 그려냈다. 흥미진진하면서도 이야기 전반에 깔려 있는 서글픔과 슬픔이 저자의 날카로운 유티와 어우러져 인간의 어리석음을 절묘하게 집어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줄리아 피어폰트(Julia Pierpont)는 뉴욕에서 나고 자란 소설가로, 버타드 칼리지를 졸업했다.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예술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뉴욕커」에서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SWIMMING LESSONS

가제 : 수영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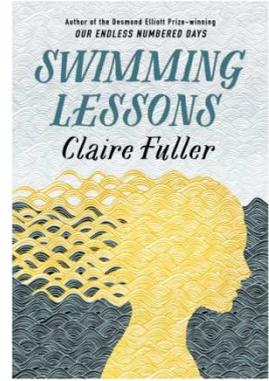
저자 : Claire Fuller

출판사: Tin House

발행일: 2017년 2월 7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미스터리



- *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판권 계약 체결
- * 넷갤리 선정 '2016년 12월의 도서', 「텔레그래프」 선정 '2017년 최고의 신작', 버즈피드, 굿리즈, 나일론, 리더스 다이제스트 선정 '2017년 가장 기대되는 소설'
- * "데뷔 소설에 이어 이번 소설에서도, 작가는 회상과 편지를 오가며 경이로움과 긴장감을 선사하며 시간과 공간의 전문가임을 입증해 보인다." - 「북리스트」

죽을 줄만 알았던 아내가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창문 밖에 홀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무려 12년 전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사라진 아내는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익사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한때 소설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남편은 중고 도서가 가득 꽂힌 서점에서 이런저런 책을 집어 들다가, 창문 밖 굵은 빗줄기 사이에 선 여자를 보았다. 오버사이즈 코트를 걸치고 손가락 끝과 발목만 드러나 있었지만, 문득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넘길 때 남자는 기절 직전에 이르렀다. 그 손짓, 머리카락이 뒤로 넘어가면서 드러난 하트 모양의 얼굴은 분명히 아내였다. 머리카락 색깔도, 얼굴에 떠오른 표정도, 모두 잉그리드였다.

남자는 바보처럼 서점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여자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잉그리드로 보이는 그녀는 어딘가로 걸어가는 중이었고, 남자는 서둘러 밖으로 달려 나갔다. 세찬 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떨어져 내렸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그가 잉그리드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눈 깜짝할 새 여자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남자는 그만 빗길에 미끄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버지가 다쳤다는 소식에 바닷가 고향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두 딸, 낸과 플로라는 잉그리드의 실종 혹은 죽음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며 살아 왔다. 언니인 낸은 현실적인 성격답게 엄마가 자살한 것은 아닐지언정, 아빠 때문에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직감했다. 하지만 플로라는 엄마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했다는 결론을 애당초 전혀 믿지 않았다. 언니처럼 아빠가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 한 인간일 뿐이라는 점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언젠가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다시 가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플로라는 믿었다. 다시 찾아온 집에서, 플로라는 엄마가 사라진 진짜 이유를 찾기로 결심한다. 분명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으리란 직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비밀이, 셀 수 없이 많은 아빠의 책들로 가득한 서재에, 빼곡히 꽂힌 그 책들 사이에 숨어 있을 줄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잉그리드가 떠나기 전,

남편의 책들 사이에 끼워둔 편지들, 16년간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하나 꼭꼭 눌러 쓴 편지들이 남편과 두 딸의 가장 가까이에 12년 동안 그대로 잠자고 있었다.

대학 교수이자 소설가인 질의 아내 잉그리드의 이야기는 이렇게 그녀가 남긴 편지를 통해서만 전해지며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대학 졸업반 시절에 교수였던 질과 처음 만난 사실, 철없는 또래 남학생들에 비해 어른스럽고 성숙하면서도 괴짜 같은 매력에 뛰어난 지적 수준으로 다가온 질에게 그녀가 푹 빠졌다는 것, 둘 사이에서 시작된 불장난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져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들이 그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1967년, 잉그리드는 질과 그 비극적인 인연을 맺기 전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친한 친구와 세계 여행을 할 계획이었지만 그 부푼 기대와 꿈은 임신 소식에 다 무너졌다.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잉그리드와 결혼한 질은 소설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생활의 모든 중심을 자신에게 맞추기 일쑤였다. 더 이상 뜨거운 감정도 없었다. 그는 철저히 혼자 있는 시간을 원했고, 요구했다. 잉그리드는 두 딸을 낳고, 그 사이에 두 아이를 유산하는 피 눈물 나는 고통과 무신경한 남편을 계속 견뎠지만 질은 무신경을 넘어서서 여성 편력이 심한 남자로 드러났고, 한때 자신과 그랬던 것처럼 못 여자들과 놀아나기에 바빴다. 그녀가 차곡차곡 눌러온 아픔은 결국 1992년, 수많은 편지를 책장 속에 남긴 채 사라져버리는 결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질이 본 여성은 정말 잉그리드였을까? 플로라는 엄마의 삶을, 숨기고 싶으면서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질의 일방적인 시선과 성인이 된 부부의 아이들이 드러내는 생각, 그리고 편지로 남겨진 잉그리드의 시선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오랫동안 잠겨 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클레어 풀러(Claire Fuller)는 잉글랜드에서 태어나 윈체스터 예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이후 마케팅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윈체스터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 과정을 마쳤다. 마흔 살에 데뷔 소설 『Our Endless Numbered Days』를 발표하고 데스몬드 엘리엇 상을 수상했다.

제목 : THE SEVERY EQUATION

가제 : 세베리 방정식

저자 : Nova Jacobs

출판사: Touchstone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스릴러



*** 극작가로 활동해온 재능 넘치는 신예 작가의 데뷔작**

*** 천재로 불리던 수학자, 할아버지가 남긴 충격적인 방정식을 발견한 손녀딸, 위험한 목적으로 그 유산을 이용하려는 자들과의 만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온 헤이즐은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일흔아홉이라는 연세에도 60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던 할아버지는 외모뿐만 아니라 농담이나 기억력이 전혀 녹슬지 않았다. 매주 전화로 안부를 여쭙 때마다, 그 점을 헤이즐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런 할아버지가 최근 정신이 오락가락했다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두 점시에 나뉜 두 사람 분의 식사를 손수 준비하고, 한 상에 차려서 한쪽은 손도 대지 않고 한쪽만 절반 정도 드셨단다. 그리고 집 수영장에서, 크리스마스에 집 안을 장식했던 작은 전구가 촘촘히 달린 전깃줄에 목이 졸린 채 발견됐다. 하지만 헤이즐이 믿을 수 없는 건 이런 일들이 아니었다. 장례식이 거행된 당일, 우편으로 전해진 할아버지의 편지 때문이었다. 아이삭 세베리, 천재적인 수학자였던 할아버지는 분명 죽는 날을 알고 있었다.

수학자답게 펜을 쥐고 종이에 휘갈겨 쓰는 일을 누구보다 좋아했던 할아버지가 타이핑된 편지를 남긴 것도 헤이즐에게는 의아한 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암살’이라는 단어가 무엇보다 또렷하게 눈에 띄었다. 할아버지는 글을 쓰는 그 순간에도 점점 목을 죄어오는 암살범을 피해 경치 좋은 곳으로 달아나고 싶다고 손녀딸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살인자는 어떻게든 찾아낼 것이고, 죽음을 완전히 피할 수 없으니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이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할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모조리 없애달라는 이상한 부탁이었다. 종이로 된 것, 전자문서로 된 것 모두 태우고, 버리고, 포맷해서 싹 지워달라고 할아버지는 당부했다. 직접 하고 싶지만, 쫓기는 몸이라 그럴 수가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도 덧붙여졌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찾기 전에 없애야 한다’고 했다.

존 라스판티라는 남자, 헤링본으로 된 옷을 좋아한다고 설명한 남자를 지목하며, 할아버지는 자신이 남긴 어떤 방정식을 그에게 전달해 달라고 헤이즐에게 부탁했다. 자신을 시작으로 총 세 명이 죽을 것이고, 경찰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해 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다 읽고 암기한 후 태워야 한다는 경고도 써 있었다.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누가, 왜 할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했을까?

망해가는 서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던 헤이즐은 난데없이 섬뜩한 살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건과 맞닥뜨린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살던 아파트까지 내놓고, 직원들은 물론 2년째 사귀던 남자친구에게도 경제적으로 절박해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서점 뒤쪽, 아주 좁고 빛도 들지 않는 공간에서 남몰래 숙식을 해결해오던 헤이즐은 사실 하루를 버티는 것만도 힘겨웠지만, 의문투성이인 할아버지의 편지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장례식 날,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친척들의 낯새로 보서는 이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자신 말고는 없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해온 연구, 돌아가시기 전에 겪은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헤이즐은 할아버지를 누구보다 아끼는 마음 하나로 일단 주어진 몫을 해내기로 결심한다. 워낙 영민한 식구들이 많아 자신처럼 평범한 아이는 외면당하던 어린 시절, 오직 할아버지만 헤이즐을 아껴주셨다. 왜 너는 다른 식구들처럼 머리가 비상하지 않느냐고 은근히 비웃지도 않았다. 헤이즐이 지금까지 삶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그 굳은 믿음 덕분이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었다. 이제는 무엇이 됐건 그 사랑을 돌려드릴 때가 됐다.

할아버지가 존 라스판티에게 전달하라는 방정식은, 놀랍게도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이었다. 죽는 시간은 물론,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까지 미리 알 수 있는 엄청난 방정식을 할아버지가 밝혀낸 것이다. 그러나 결코 적절치 않은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자들이 할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방정식의 행방을 찾아 나선다. 이 놀라운 수학적 업적이 이상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헤이즐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저자 소개>

노바 제이콥스(Nova Jacobs)는 로스앤젤리스에서 작가, 각본가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예술과 학 아카데미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사우스캘리포니아 대학교 영화예술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 영화 감독 도니 아차르(Donnie Eichar)와 함께 년픽션 『DEAD MOUNTAIN: The Untold True Story of the Dyatlov Pass Incident』 (Chronicle Books, 2013)를 썼다.

제목 : THE GIRL WITH NO NAME

가제 : 이름 없는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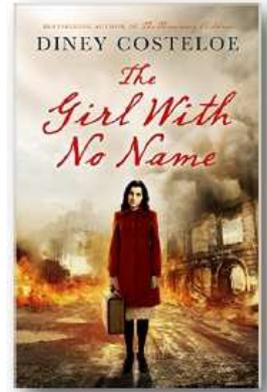
저자 : Diney Costeloe

출판사: Head of Zeus

발행일: 2016년 3월 1일

분량 : 486 페이지

장르 : 소설/ 역사소설



* **2015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전자책 28만부, 페이퍼백 3만 여부 등 30만 부 이상이 판매된 영국 베스트셀러 작가의 역사 소설**

* **영국, 미국, 캐나다 전자책 베스트셀러 1위, 페이퍼백 판매량 20만권 돌파, 전자책 톱 100 순위 에 277일간 머무른 소설**

트루디 이모의 집,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이모의 집이 집에서 쫓겨난 리사와 엄마, 남동생의 목적지였다. 도피 생활은 그렇게 갑자기 시작됐다. “유대인은 꺼져라!” 날마다 이런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진 이후 늘 예견되던 일이었지만 세 사람이 정말로 집을 나서야만 하는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양손으로 입을 틀어 막아 겨우 참던 엄마, 앞이 보이지 않아 제 몸처럼 손에 꼭 쥐고 다니던 지팡이를 찾아달라고 애원하던 남동생 마틴, 그리고 엄마가 챙겨준 겨울코트를 걸친 리사는 아빠가 환자를 보러 왕진을 간 사이, 독일 하나우에 위치한 정든 집을 벗어나 길거리로 나왔다.

리사의 아빠는 의사였다. 큰 건물 1층은 늘 아빠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로 가득했고 식구들은 2층에서 생활했다. 부족함 없이 행복했던 시간은 전쟁이 시작된 후 꿈처럼 사라지고, 1층은 독일군에게 빼앗겼다. 유대인들을 남김없이 찾아 잡아가는 비밀경찰, 게슈타포에게 들킬까 봐 전등도 켜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던 어느 날, 집에 남아 있던 세 사람은 결국 경찰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올바른’ 독일인들도 제대로 된 집을 갖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데 ‘감히’ 유대인 주제에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살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길길이 날뛰던 경찰 무리는 가방 하나에 모든 짐을 챙겨서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다. 엄마는 아빠가 마침 자리를 비워 바로 체포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여기며,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을 색출해내려는 나치의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하고 거세졌다. 결국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리사는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열차에 태워졌다. 겨우 열세 살,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한 리사는 유대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독일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피난 열차에 올랐다.

1939년 8월, 리사는 태어나 처음으로 영국 땅을 밟았다. 엄마가 손수 써준 편지 한 통만이 소중한 가족들을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아이들을 나치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낸 고마운 사람들은 리사를 아이가 없는 어느 영국인 부부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양부모가 된 그들은 리사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리사는 영어를 한 마디도 하지 못했고 부부는 독일어를 전혀 몰

랐다. 낯선 땅, 낯선 집에 온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리사에게 누구와도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답답함을 넘어 절망으로 다가왔다. 학교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아이들은 영어를 모르는 리사를 이름 대신 ‘독일인’으로 불러대며 놀리고 따돌렸다. 왜 외국에 혼자 실려와서 살아야만 하는지, 왜 혼자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해주려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학교 아이들의 괴롭힘이 날로 심해지던 어느 날, 리사에게도 구원투수가 나타났다. 독일에서부터 같이 기차를 타고 온 남자아이가 나타나 리사를 구해준 것이다. 그때부터 해리와 리사,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남모를 우정을 쌓아간다. 영리한 리사는 영어를 조금씩 익히기 시작하고, 양부모와도 서서히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피어난 희미한 희망도 잠시, 겨우 자리를 잡은 새집도 떠나온 고향집처럼 저 멀리 사라졌다. 지칠 줄 모르는 독일군의 대공습에 집이 폭파되고 만 것이다. 집에 있다가 폭격을 고스란히 경험한 리사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왜 병원에 누워 있고 어디에 사는지 모든 기억을 잃고 말았다. 부상을 입기 전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주는 단서는 딱 하나, 엄마가 쓴 편지가 전부였다.

큰 사고로 기억을 잃은 리사에게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고아원으로 데려갔다. 영국으로 건너올 때 한 번, 사고로 또 한 번 리사는 사람들에게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리사를 잊지 않은 친구가 있었다. 학교에서 만난 유일한 친구, 해리는 갑자기 사라진 리사를 찾기 시작했다. 못된 아이들에게서 리사를 구해준 그 날처럼, 해리는 이번에도 자신이 먼저 나서서 리사를 찾고 무슨 일을 겪고 있건 구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전쟁으로 독일군에게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싹쓸이’ 대상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겪은 공포와 절망, 모든 생활 공간에서 유대인을 몰아내고 바다 건너 런던까지 스며든 독일군의 냉혹한 작전을 어린 리사의 눈으로 그리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디네이 코스텔로(Diney Costeloe)는 작년에 판매된 저서만 80만 부 이상인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다. 런던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평생을 이야기와 시를 가까이하며 살았다. 대학 졸업 후에는 런던 이스트엔드와 서머셋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디네이 들랜시(Diney Delancey)’라는 필명으로 로맨틱 소설 열 편을 발표하고 잡지, 라디오 등에 단편소설을 쓰다가 20세기 역사로 눈을 돌려 디네이 코스텔로라는 이름으로 역사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The Throwaway Children』, 『The Runaway Family』, 『The Lost Soldier』, 『The Sisters of St Croix』 등이 있다.

NON- FICTION

제목 : THE SUN

가제 : 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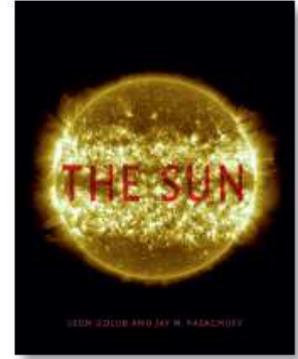
저자 : Leon Golub, Jay M. Pasachoff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7년 6월 12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과학(천문학)



- * **“명료한 내용과 섬세한 설명이 돋보인다. 태양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혹되고 많은 것을 깨우칠 만한 책.” – 영국 왕실천문관 소속 과학자, 마틴 리스**
- * **천체물리학적 두 전문가가 멋진 사진을 곁들여 쉽게 풀어 쓴 태양의 모든 것,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와의 관계**

“태양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 가장 적절하고 간단한 답은 “살기 위해서”일 것이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 어떤 생명체도 생을 이어갈 수 없다. 이 원초적인 중대성 외에도 태양은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닿는 규모에 따라 적도, 온대기후, 빙하가 가득한 지역이 나뉘고 그에 따라 인구수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그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리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하루에 낮과 밤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태양의 필요성은 더 논할 필요도 없으리라. 하지만 이 기본적인 이해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 태양을 이해하려면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똑같이 하늘에 떠 있는 달과는 크기 면에서나 지구와의 거리에서 비할 바가 아니라는 점, 꼭 태양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등 태양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대체 태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어떻게 그리 환하게 빛이 날까? 우주에는 태양이 언제부터 존재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존재할까? 천체물리학 연구에 매진해온 두 저자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이 책에서 소개하며 늘 우리 곁에 있는 태양에 한 걸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태양의 다양한 과학적 특성을 요모조모 분석한 정보와 더불어 태양을 연구해온 천문학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밝힌 태양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지구가 포함된 태양의 영향권, 즉 ‘태양계’의 모습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에게서 저 멀리서 반짝이는 점으로만 보이는 무수한 별들이 태양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실제로 태양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태양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주변 다른 행성들의 실체를 벗기기 위한 토대로 태양을 분석해왔다. 두 저자는 그 역사적인 성과와 함께 흑점과 약 11년 주기로 흑점의 수가

바뀌는 신기한 현상,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자성에 대해 설명하고 태양의 속으로 들어가 표면에서 관찰되는 지진파의 근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또한 먼 옛날부터 인간을 매혹시킨 신비로운 현상, 일식과 오직 일식 때만 볼 수 있는 태양의 특성, 그리고 우주에서 바라볼 때만 확인할 수 있는 태양의 모습, 태양에서 분출되는 물질에 따른 우주 공간의 날씨와 지구에 달는 방사선, 입자 변화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한다.

태양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우리가 매일 따스한 온기와 환한 빛으로 느끼는 태양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만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태양의 흑점
2. 태양의 내부
3. 태양의 펄스
4. 스펙트럼과 그 의미
5. 태양의 채층과 그 중요성
6. 눈에 보이는 코로나
7.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광자에 관한 논의
8. 태양에서 발생하는 폭풍: 입자와 자기장에 관한 논의

맺음말: 태양권

부록 I. 태양을 안전하게 관찰하려면

부록 II. 아마추어를 위한 태양 관찰법

부록 III. 일식 때 코로나 관찰하는 법

부록 IV. 우주에서 본 태양

<저자 소개>

레온 골럽(Leon Golub)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관측소에서 선임 천체물리학자로 일하고 있다.

제이 M. 마사초프(Jay M. Pasachoff)는 윌리엄스 칼리지의 홉킨스 관측소 소장 겸 천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천문연맹의 일식 연구단장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The Peterson Field Guide to the Stars and Planets』, 『The Cosmos』가 있으며 레온 골럽과 함께 『The Solar Corona and Nearest Star』를 썼다.

제목 : A REALLY GOOD DAY

가제 : 정말 기분 좋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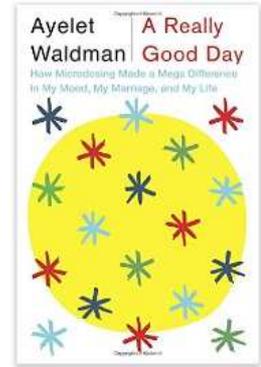
저자 : Ayelet Waldman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7년 1월 10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위트와 겸손함의 기록. 읽을 수록 빠져드는 책이다.”- 「오 매거진」, ‘지금 당장 읽어야 할 열 권의 책’ 선정 이유**

*** “환각제를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작가는 진실함이 바탕이 된 용기와 모든 인간이 겪는 순간을 포착했다.”- 「뉴욕타임스」**

감정을 꼭 누르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인의 고통은 해마다 치솟는 우울증 환자 통계로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버티기 위해, 사람들은 몸에서 나타나는 온갖 징후를 무시하고 겉모습을 잔잔한 수면처럼 유지하려 애쓴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속에서 압력이 점점 더해지다 원치 않는 순간에 새어 나와 버린다. 소설가로, 작가로 미국에서 큰 명성을 얻은 저자 역시 평생을 오락가락하는 극심한 감정 변화에 시달려 왔다고 고백한다. 기분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준다는 온갖 약을 다 처방 받아서 먹어봤지만 잠시 효과가 있나 싶을 때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기 일쑤였다. 그렇게 번번히 치료가 실패하는 사이 감정은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주변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은 물론 스스로의 일상은 지옥처럼 변해갔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 찾고 헤매던 저자는 어느 연구 자료에서 뜻밖의 길과 만났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약으로 약명이 높은 환각제, LSD를 극소량씩,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용하는 방법이었다. 저자는 자신은 물론 아끼는 이들에게도 제발 “정말 기분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파격적인 치료법에 뛰어든다. 이 책은 30일간 LSD를 복용하면서 저자가 매일 변화를 기록한 치료 일기이자 LSD를 비롯한 각종 환각물질의 역사와 잘못된 정보에 관한 지적 탐구의 결과물이다.

LSD의 인지기능 강화 효과에 관한 연구로 과학계에서 저명한 학자로 떠오른 제임스 패디먼 (James Fadiman) 박사는 못 사람들에게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마약으로 여겨지는 이 약물을 극소량 복용하는 ‘미세투약’ 치료법을 개발했다. 그리고 실험을 거듭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이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는 답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저자는 이 성과를 발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날, 하루하루를 그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보내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리하여 2015년 봄의 어느 날부터, 보통 환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되는 양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LSD를 3일간 연속 복용하고 쉬었다가 다시 복용하는 치료를 시작했다. 약물 검사를 받아도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양이지만 세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양

이었다. 한때 연방 검사로 일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참여하고 불법 마약거래상을 찾아내는 일이 직업이던 작가는 통제 약물인 LSD를 자진해서 복용하는 과감한 행보를 하게 된 배경과 30일간 경험한 놀라운 효과를 더 없이 솔직하고 용기 있게 털어 놓는다. 이미 전작 에세이 『나쁜 엄마』에서 아이들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남편 없이는 못 산다고 밝혀 아동 학대자로 의심을 받는 등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작가답게, 이번에도 저자가 거리낌 없이 털어 놓은 상태와 상황을 접할 수 있다. 허를 찌르는 위트와 예리한 눈으로 평가한 환각제의 효용성, 역사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왔는지에 관한 폭넓은 정보도 보너스로 얻을 수 있다.

그저 휘몰아치기만 하던 감정 기록을 이겨내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이 결코 극단적이지 않은 결과를 얻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오로지 ‘마약’이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만 불리는 물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 특별한 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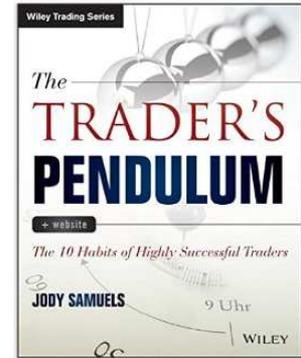
<목차>

- 별도 목차 없이 1일차, 2일차, 3일차 등 일기 형식으로 구성됨.

<저자 소개>

에일렛 월드먼(Ayelet Waldman)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작가로 전향했다. 여성의 심리묘사와 치열한 심리 추적이 돋보이는 소설로 발표하는 작품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국내에 처음 소개된 영화 원작소설 『사랑 그리고 여러 불가능한 소망들(Love and Other Impossible Pursuits)』을 비롯해 『Love and Treasure』, 『Red Hook Road』 등이 있으며 2009년에 발표한 논픽션 『나쁜 엄마(Bad Mother)』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풀리처상 수상 작가인 남편 마이클 세이본(Michael Chabon), 네 자녀와 함께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살고 있다.

제목 : THE TRADER'S PENDULUM
가제 : 흐름을 타야 상업도 성공한다
저자 : Jody Samuels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5년 8월 3일
분량 : 312 페이지
장르 : 경제/투자



- * “상업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줄 아는 노련한 상업 전문가답게, 저자는 성공한 상업가의 주된 습관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 ‘인베스트 디바(*Invest Diva*)’ 창립자 키아나 대니얼스
- * “상업 분야에서 저자가 일궈온 성과도 훌륭하지만, 기업가의 자세로 상업에 임하라는 메시지는 또 하나의 큰 성과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책” – 상업 전문 웹사이트 *TheDisciplinedTrader.com*의 CEO, 노먼 할렛

상업에 몸담은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같이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 변화를 얼마나, 어떻게 예측하느냐가 상업의 관건이다. 왔다 갔다 오가는 진자의 추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시장에서 어떤 흐름에 몸을 싣느냐에 따라 거래는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거래 전문가이자 오랫동안 상업가들의 코치로 명성을 높여온 저자는 늘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상업가들을 위해, 성공한 상업가들이 편안하게 몸을 맡기는 흐름이 어떤 모습인지 이 책에서 자세히 보여준다. 세부적인 거래 기술과 전략에만 중점을 두는 대신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 올바른 습관을 소개하며 진정한 상업가로 두드러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주식 거래부터 물건을 사고파는 일까지, 상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일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은 웬만큼 거의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유독,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상업가를 제치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저자는 기업을 운영하는 마음자세와 올바른 습관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이 참여한 모든 거래를 하나의 사업으로 여기고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거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듯 거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체결까지 전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계획을 실천하고,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찾는다. 저자는 그저 남들처럼 거래에 임하는 ‘평균적인’ 상업가들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새로 등장한 기술이나 새로운 거래 시스템에 호기심을 갖고 무모하게 그 기술을 익히면 성공의 고속도로에라도 오를 수 있을 것처럼 부른 기대를 안고 일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온갖 변수가 작용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생존은 물론 남들과 다른 성공을 거두려면 오히려 차분하고 안정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저자는 ‘습관’이라 칭한 이 성공한 상업가의 생활방식을 열 가지로 정리하여 한 장

씩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혼돈으로 가득한 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정서적, 심리학적 요소의 기능과 이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포용하는 법, 기술의 뒷에서 벗어나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위험한 장애를 뛰어 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상업가용 채점표’, 거래라는 ‘사업’의 운영 방식을 고민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과 계획 예시, 열 가지 습관의 영상 자료 등 책 내용을 다방면에서 뒷받침하는 웹사이트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조언과 예시, 모형 등 실질적인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서다.

<목차>

1부. 머리말: 상업가의 추

- 1장. 성공한 상업가와 그저 그런 상업가
- 2장. 상업가의 발목을 붙드는 덫
- 3장. 기업형 상업가가 되려면 – 전체 과정

2부. 취미를 비즈니스로

- 4장. 습관 1: 사업 목표를 똑바로 정하라
- 5장. 습관 2: 상업가에게 꼭 맞는 사업계획 수립
- 6장. 습관 3: 목표 정의

3부. 기업형 상업가가 되는 방법

- 7장. 습관 4: 상업의 기술을 철저히 익혀라
- 8장. 습관 5: 나만의 상업 기술을 찾아 활용하는 법
- 9장. 습관 6: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 10장. 습관 7: 사전 계획, 계획의 거래

(이하 생략, 총 5부, 16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조디 사무엘스(Jody Samuels)는 북미 지역 전역에 잘 알려진 상업 컨설턴트로 전문 코칭 프로그램인 ‘FX Trader’s EDGE’를 개발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워튼 스쿨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제목: HOW TO FALL IN LOVE WITH ANYONE

가제: 무조건 사랑에 빠지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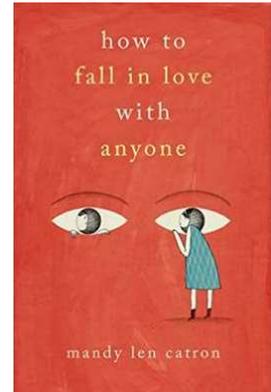
저자: Mandy Catron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17년 6월 6일

분량: 256 페이지

장르: 에세이



- * **2015년 「뉴욕타임스」 최고 인기 기사 다섯 건 중 하나에 포함된 글 “사랑에 빠지고 싶다면 이렇게 해봐라”의 저자가 완성한 매력적인 에세이**
- * **사랑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가로막는 요소들, 사랑하고 사랑 받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본 솔직하고 영리한 글**

사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 2015년 1월, 「뉴욕타임스」 ‘현대의 사랑’ 칼럼에 그 의문을 조금 풀어줄 실험 이야기가 실렸다. 20년 전에 실시된 이 심리학 실험에서는 서로간의 친밀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서른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조사했다. 이 실험에 큰 호기심을 느낀 칼럼 저자는 어느 여름 밤,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실험 내용을 그대로 실전했고 그는 곧 남자친구가 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칼럼은 온라인에 게재되자마자 삼시간에 퍼져 나갔고 몇 주 만에 조회수가 수백만 건을 넘어서며 큰 화제를 낳았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저자는 사랑에 빠지는 공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으리라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러브스토리라 생각했던 사연의 주인공, 부모님이 이혼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말을 맞고 10여 년을 끌어온 사랑에 종지부를 찍은 뒤, 저자는 다시 한 번 사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가 사랑이라 생각하는 것, 일반적인 정의와 그 속에 담긴 오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지 못하도록 혹은 사랑이 영원히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지 탐구한 결과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영화나 책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가 친근할 때도 있지만 ‘비현실적’이라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비현실적인 사랑을 기대한다면 실제 사랑에 방해가 될까? 저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사례, 사랑에 관한 역사적인 인식과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총망라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방식과 세상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그 의미를 찾아본다. 1944년, 애팔래치아 광산 마을에서 처음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광부의 딸로 태어나 학교 치어리더가 된 엄마가 축구 코치이던 아빠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저자 자신이 밴쿠버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만난 사랑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하고, 이어 인류 공통적인 사랑의 심리적, 생물학적 특성과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함께 들려준

다. 누군가와 사랑하고픈 마음이 인간에게 내재된 본능인지, 왜 우리는 수많은 러브스토리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끌리고 폭 빠지는 이야기가 따로 있는지, 눈에 보이는 각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진행되는 사랑의 전개가 왜 존재하는지, 저자는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자신이 찾은 해답을 우리와 공유한다.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랑 이야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가 모두 포괄된 에세이다.

<목차>

머리말

폭발한 별: '괜찮은 사람'에 대한 오해

축구 코치와 치어리더: 무엇이 멋진 러브스토리를 만들까?

광부의 딸: 사랑의 배경

소년, 소녀를 만나다: 각본대로 흘러가는 사랑

합당한 대접의 문제: 신데렐라에 집착하는 미국

블랙박스: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야기 속 생각들

그래, 잘 들어봐: 좋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나쁜 조언

누구와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일상적인 헌신이 주는 기쁨

<저자 소개>

맨디 캐트론(Mandy Catron)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면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치고 직접 글을 쓰면서 살고 있다. 2015년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글 “사랑에 빠지고 싶다면 이렇게 해봐라(To Fall in Love with Anyone, Do This)”는 그 해 가장 큰 화제가 된 글 다섯 건 중 하나로 뽑혔다.

제목 : THE WINE DINE DICTIONARY

가제 : 와인과 안주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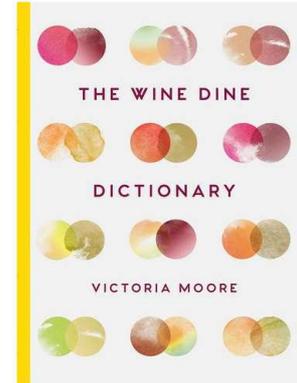
저자 : Victoria Moore

출판사: Granta Books

발행일: 2017년 5월 1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취미/요리



- * “귀중한 정보, 근거가 탄탄한 정보들로 채워진 완벽한 책이다!” – 미술쟁 세프, 미셸 록스 주니어
- * “앞으로 족히 몇 년은 활용할 수 있는 와인 정보서. 자세한 내용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 ‘녹초가 된 엄마들의 와인 클럽’ 소속회원, 헬렌 맥긴
- * 2010년 ‘V&A Illustration Awards’ 수상작 「HOW TO DRINK」의 저자가 쓴 두 번째 와인 정보서

양치질을 한 다음 무심코 오렌지주스를 들이켜본 사람은, 입 안에 남아 있는 맛이 뒤이어 먹는 음료의 맛을 얼마만큼 좌우하는지 느꼈을 것이다. 먹는 즐거움, 와인 마시는 낙으로 산다는 저자는 음식과 와인의 조합도 바로 그 경험과 마찬가지로 이야기한다. 이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이유를 토대로, 저자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어떤 와인과 어울릴까 고민될 때, 반대로 괜찮은 와인을 하나 구입했거나 잘 모르는 와인이 생겼을 때 어떤 음식과 어울릴까 궁금할 때 바로 펼쳐볼 수 있는 사전을 완성했다. 수십 년 와인만 만든 장인들이나 소믈리에, 전문 요리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와인과 음식에 관한 지식을 수없이 많은 저서로 발표해왔지만, 저자는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제시한다. 누구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쓴 정보지만 내용의 탄탄함이나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책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와인을 마실 때 느끼는 감각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어떤 와인은 반드시 특정 음식과만 먹어야 한다는 강력한 추천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자는 맛과 향의 조화가 음식에서 얻는 경험을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시키는지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상의 조합에 호기심을 갖도록 설득한다.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 어울리는 조합이든, 와인과 음식의 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은 어디까지나 추천일 뿐 안 지키면 큰일나는 규칙이 아니라는 설명도 충분히 와 닿는다. 맛과 향의 감각을 설명한 후, 책은 사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한다. 먼저 A부터 Z까지 음식 목록이 나오고 그 음식과 잘 어울리는 와인이 함께 제시된다. 음식은 재료일 수도 있고, 완성된 요리인 경우도 있다. 재료가 제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요리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에 관한 정보도 함께 나온다. 음식 리스트 바로 다음에는 똑같이 A-Z 순서로 와인 리스트가 나온다. 와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흥미롭게 읽을 만한 간략한 역사와 제조방식, 맛의 특징이 소개되고 이어 각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음식이 소개된다.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된 조합은 물론 전 세계 와인 제조자, 요리사, 소믈리에와의 인

터뷰, 심층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이 종합되어 있는 백과사전이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떤 음식과 와인을 즐겨 먹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음식문화 기행서이기도 하다. 포도밭에서 직접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 다 찌그러진 양철통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나 감자를 구워 먹으며 마시는 와인,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과 와인을 곁들여 먹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이야기는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가까운 슈퍼마켓에 들러 일상적인 저녁식사를 준비하면서 또는 가까운 곳에 짧은 여행을 떠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리와 와인 아이디어는 충분히 실용적이다.

<목차>

I 머리말

II 맛, 향, 그리고 뇌

- 맛이란 무엇인가?
- 미각
- 후각
- 향과 체성감각
- 향과 다른 감각
- 와인의 언어

III 간단 가이드

- 책 활용법
- 기분에 따라
- 무게에 따라
- 장소에 따라
- 고급 와인, 고급스러운 음식
- 재료 하나가 결정적인 한 방이 된다
- 조금은 전문가처럼: 여섯 가지 핵심

음식 리스트 A-Z

와인 리스트 A-Z

와인/음식 추천 목록

<저자 소개>

빅토리아 무어(Victoria Moore)는 수상 경력이 있는 와인 전문 저술가로, 「텔레그래프」에 매주 음료에 관한 칼럼을 실고 있다. 「뉴 스테이츠먼」, 「가디언」에도 와인 관련 글을 기고해왔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저서로는 『How To Drink』가 있다.

제목 : SIGN AND SEASONS

가제 : 별자리와 계절이 알려주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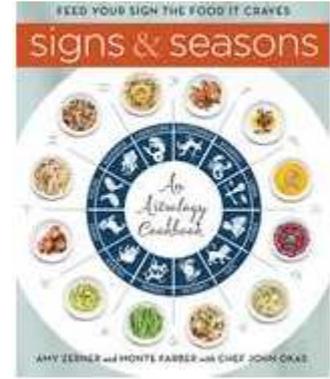
저자 : Monte Farber, Amy Zerner

출판사: HarperElixir

발행일: 2017년 5월 2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취미/요리



* 태어난 별자리마다 잘 어울리는 음식과 식생활을 최초로 소개한 참신한 정보서

* 몸은 물론 영혼과 마음을 다독이는 음식, 전문 요리사가 추천하는 80여 가지 계절별 요리

“월 먹어야 하나?”라는 고민은 비단 저녁 메뉴를 걱정하는 주부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메뉴 고민에 그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면 먹어야 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절대적 필요성도 이 단순한 질문 속에 담겨 있다. 또한 음식은 인간에게 생물학적인 필수 요소인 동시에 감각을 채우고 사회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먹는 낙, 먹는 재미, 음식이 선사하는 즐거움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삶의 큰 부분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떠올리면, 음식을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로만 볼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마다 제 각기 식성이 다른 것은 물론 똑같은 음식에서 느끼는 감정도 다르다는 점이다. 단순히 입맛의 차이일까? 두 저자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점성술에서 찾는다. 열두 가지 별자리에 따라 삶의 모습이 바뀔 때가 있는 것처럼, 입맛을 좌우하고 음식에 대한 느낌, 음식에서 얻는 기쁨, 행복의 수준도 달리 한다는 것이다. 별자리마다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이 다르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생기는 계절의 변화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계절마다 특히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음식이 있고, 충분히 먹어야 하는 재료가 정해져 있다. 두 저자는 사상 처음으로 별자리와 계절을 접목시켜, 이 두 가지 변화하는 요소가 우리의 식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가 그 영향을 인지하고 받아들여 각자의 별자리와 계절에 잘 맞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음식에 대한 선호도, 끼니를 해결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신기한 별자리의 기능과 몸도 영혼도 튼튼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별자리라는 독특한 접근방식으로 소개한 책이다.

책에서는 두 저자가 전문 요리사와 함께 개발한 85가지 요리가 계절별로 소개된다. 요리마다 점성술의 전통적 의미를 설명하고 몸이 느끼는 감각, 몸에 필요한 영양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만족감을 주는 각 재료의 역할을 설명한다. 요리는 대부분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즐겨 먹는 요리가 바탕이 되며 별자리에 신의 이름을 부여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음식의 의미를 되새긴다.

점성술이 유익한 이유는 조화와 균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두 저자는 설명한다. 이 책

심 가치를 요리와 식생활에 접목시켜, 습관적으로 굳어진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고 음식과 요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더 넓게는 삶을 향한 자세에 조화와 균형을 다시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계절 변화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점성술의 특징과 의미를 통해 어떤 재료와 요리로 식탁을 채우는 것이 자신에게, 그 자리를 함께할 사람들에게 이로운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별자리 별 식습관과 잘 먹는 음식

I 봄

II 여름

III 가을

IV 겨울

<저자 소개>

에이미 저너(Amy Zerner)는 미국 국립예술기금위원회가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예술가로 1988년부터 남편인 몬테 파버(Monte Farber)와 함께 『The Enchanted Tarot』, 『The Instant Tarot Reader』, 『True Love Tarot』, 『Karma Cards』, 『Chakra Meditation Kit』 등 명상, 타로카드 등에 관한 다양한 저서를 발표했다. 두 사람의 저서는 전 세계 16개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모두 200만 권 이상 판매됐다.